



북미주 이화동창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EWHA WUAANA

www.ewhaian.org

E-mail: EWUANA@gmail.com

Phone: (847) 439-6592

발행인: 이풍자 편집인: 임성숙

동창은 이화가 배출한 보배, 우리의 생동력은 이화의 보람

2020년 7월



EWHA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동창회 20주년

眞・善・美

이화가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 이념들을
진(眞), 선(善), 미(美) 라는
간결한 표어로 정의한다.
풍부한 지혜와 지식,
아름다운 덕성과 정서를
조화롭게 지닌 인성교육은
이화가 추구하는
전인교육 이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가
최상의 가치로 삼아온
진, 선, 미는
하늘에 속한 것인 동시에
인간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이화의 교훈은
1930년 무렵 당시
문과 교수이던
김상용(金尙榕) 선생이
간결하고 명확한
'진, 선, 미' 를 제안하였고,
교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제정되었다.



Table of Contents

• 인사말	4
• 의료원장 인사말 / 의료원 소식	6
• 장학사업	8
• 의대 활동 소식	9
• 2019년 총회 보고 / 사진	10
• 복미주동창회 20주년	16
• Pandemic & Life Stories	18
• 시	21
• 부군 설문지	22
• 시 / 수필	25
• Covid-19 & 경제	28
• 의대 견습생 방문	29
• 동창 활동 소식	30
• 후원금 / 편집 후기	35





사랑하는 북미주동창회 동문 여러분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불안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온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북미주동창회는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가슴 벅차고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이화를 사랑하는 선후배들의 신실한 봉사와 헌신, 또 많은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끊임없는 재정적 후원을 통해 우리 동창회는 그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는 올해로 창립 13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기념식은 COVID-19의 여파로 지난 5월 29일 모교 대강당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조국을 떠나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많은 동창들은 이 방송을 보며 134년 전 이화여자대학교의 창립을 통해 교육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한국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열어주신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김혜숙 총장은 기념식사를 통해 “여자 대학으로서 이화의 미래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하며 이화의 미래를 위해 ‘최고의 교육’과 ‘차별화되고 고유한 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김 총장은 “이화는 연구중심 대학의 본질이 선도적 지식 생산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여자대학으로서 모든 학문 분야에서 여성의 관점을 침체화해 새로운 지식과 대안적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주동창회는 우정과 신뢰를 키워가며 선후배가 친목하는 가운데 상호지원을 도모하고, 우리의 모교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창들의 재능과 인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리들의 삶을 좀 더 의미있게 하며, 삶의 활력소를 찾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뜻 있는 일에도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북미주동창회는 북미주로 유학을 오는 이화의 재학생들과 이화 졸업 동문, 북미주에 거주하는 동창들의 대학(원)생 자녀들, 그리고 한인으로서 북미주에 입양된 대학(원)생들 가운데 성적이 우수하고 창의력과 지도력을 갖췄으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한국인 후세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합니다.

“동창은 이화가 배출한 보배, 우리의 생동력은 이화의 보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이화의 진·선·미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이사장 **최 경 숙** (영문, 66)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동문 여러분,

그동안 모두 평안하신지요?

신록이 무성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여유도 없이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은 많은 생명을 빼앗아갔고, 외출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끼게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한 여러 방면으로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창의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북미주동창회는 2020년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며 'New Decade, New Direction for Excellence'라는 20주년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 동창회에 잘 어울리는 뜻 있고 멋진 주제라 생각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쌓아 온 경험을 토대로 북미주 동창회 설립 목적을 견고히 하며, 동창회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신한 생각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 20회 연례모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기된 것은 무척 아쉽지만 2021년에는 총회를 더욱 의미 있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북미주동창회는 예년과 다름없이 장학사업을 비롯한 동창회 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모교 후배들과 북미주 동창 자녀들에게 총 만5천불의 장학금을 수여하였고, 올해는 2만불의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시작한 의료원 후원금 모금은 북미주동창회 동문들의 참여로 이대 서울병원 건립에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이 되었고, 우리 동창회는 계속해서 의료원 후원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편집부에서 특집으로 편집한 동창회보 '북미주 이화동창'을 통해 여러분께 대선배님들의 이야기와 부군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또한 2019년 Portland, Oregon 총회와 여행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아름다운 추억이 새롭게 떠오르실거라 생각합니다. 한동안 잊었던 인연들이 재연결 되고 우정도 더 돈독해지며 새로운 동창들의 소식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2020년도의 역경은 우리 시대의 역사 속에서 잊을 수 없는 힘든 해로 남을 것 같습니다. 내년 10월 서울에서의 만남을 간절히 기다리며, 동문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회장 **이풍자** (영문, 62)

이화의료원은 도약을 위한 걸음 걸음마다 북미주 동창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이화의 정신이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정신과 위기 극복의 역량과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조차 없었던 소외된 여성을 위한 전문병원인 보구녀관이 133년전 서양의학 도입과 거의 동시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의 지위와 인권을 생각하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도전의 정신이 이화의료원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지어 놓고도 개원을 못했던 릴리안해리스 기념병원은 우여곡절 끝에 1912년 개원 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동대문부인병원이 되었습니다. 이대동대문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이 통합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명실공히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의 양병원체제를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되었습니다.

이화의료원은 도약을 위한 걸음 걸음마다 북미주 동창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8년 전 세워졌던 이대목동병원은 모든 병동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020년 7월에는 새로운 병원으로 탄생할 예정이며 새로운 환경에서 특화될 몇몇 센터가 대기 중입니다.

북미주 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부터 의료원장을 맡게 된 유경하입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먼저 인사드리게 되어 송구하고 안타깝습니다.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위기의 2020년을 시작하였고, 봄을 지나 여름의 문턱에 와있지만 해결될 기미도 없습니다. 회원님들이 계신 북미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지난 2015년 원장에 취임하자마자 메르스 사태를 수습해야 했던 저로서는 코로나 사태로 시작된 임기가 새롭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지는 현실에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화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시는 해외동창 여러분의 열정과 업적이 저희한테는 큰 귀감이 됩니다. 특히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런 고통의 시간속에서도 고국과 이화의료원에 대한 미주동창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리모델링한 병동



아름답고 쾌적하게 변화된 환자 및 보호자 휴게실



첫 돌이 막 지난 이대서울병원은 올해 10월에 800병상 규모로의 진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인턴 모집을 시작으로 2022년 전공의를 교육하는 교육수련병원으로의 면모를 갖출 것입니다.

존경하는 북미주동창여러분
아름다운 정동 길에 가보면 서울시에서 예전 보구녀관의 터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표지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구녀관은 1887년 미국 북감리회에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전용병원으로 여성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였다. 1912년 홍인지문 옆으로 옮겨 해리스기념병원이 되었다. 이화여대 의료원의 전신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의학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최초의 여의사를 탄생했고 최초의 간호사를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전문 병원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앞의 큰 장벽이기는 하지만 4,500여 국내외 동창회원분들이 뒤에서 버티고 있는 세계 최대의 여자의과 대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의료원은 도약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곧 뚝배기 되길 기대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경하 올림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장학금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www.ewhaian.org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는 2003년부터 장학 기금을 조성하고, 북미주에 유학 오는 이화 재학생과 이화 졸업 동문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창의력과 지도력이 있으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북미주에 거주하는 동창들의 대학생, 대학원생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최경숙(영문, 66)동문 가족이 마련한 장학금이 올해부터 지원됩니다. 이 장학금은 한인으로서 북미주에 입학된 대학(원)생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졌습니다.

이화 북미주동창회 장학금이 이 곳에 뿌리를 내리는 한국인 후세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학업에 정진 하도록 격려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뜻깊은 사업에 동문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장학금 신청서는 www.ewhaian.org에서 download 하고, 필요한 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성적증명서, 추천서(2), 재학증명, essay 등입니다.

신청 마감일: 2020년 8월 31일

보낼 곳: Hyoeun Cho Shorack, 4926 Regla Court, San Diego, CA 92122

Email: hshorack@san.rr.com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EWUAANA) is seeking talented students who may be in need of financial support for the academic year, 202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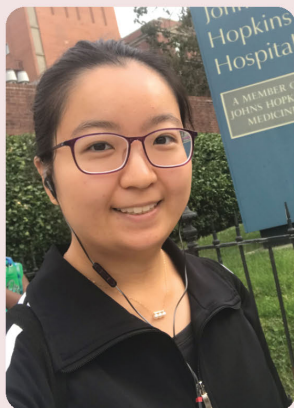
Applications are open to Ewha Womans University undergraduates, graduates or children of Ewha Alumnae in North America who expect to attend an accredited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in North America during the grant year, or recent Ewha graduates who are doing research or pursuing other scholarly or artistic projects in North America.

Additionally, a scholarship for college or graduate school Korean-born students who have been adopted by parents residing in North America will be available as long as funding lasts. This scholarship was established by the family of Dr. C.D. Kwon in his memory.

Applicants must be able to submit evidence of: (1) good academic or artistic achievement and promise; (2) financial need; and (3) sound character and commitment to science and/or the arts, including liberal arts.

Applications may be submitted via email to hshorack@san.rr.com or mail to the address on page 7, postmarked no later than August 31, 2020.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email Heather Shorack at hshorack@san.rr.com.



I really want to thank you for supporting my education. I traveled to Korea this summer and I was so happy that I visited Ewha Woman's University. Ewha is such a wonderful, beautiful, and amazing school and if I have a chance, I would be so honored to study medicine there too in the future.

I recently joined a top leading pathology research team, Hamad Lab, at Johns Hopkins Hospital, and I'm having a really great time learning and experimenting with their newly discovered X cells that's been published in many prestigious medical journals/websites alongside amazing Hopkins Ph.D researchers and professors.

Thank you so much for making my educational dream possible, and I really want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in the future.

Angela Yang Johns Hopkins University



My time at Harvard University has been, in many ways, educative. Certainly, I have been able to learn academic materials at a level of complexity that I had always dreamed of. The college has provided me the means to engage in great philosophical discourses with both my peers and faculty members. However, I would say that my experiences at this university have primarily educated me of myself--my passions and disinterests, my strengths and weaknesses. After a hectic first year at college characterized by multiple identity crises, I now have a more clear picture of myself as a scholar.

Through this new vision of myself as a potential academic, I have been able to seek out opportunities best fit for me. That being said, I am excited to share that--with the generous support of the Ewha Alumnae Association Scholarship--this summer, I will be studying at Exeter College, a constituent college of Oxford University. This scholarship will provide me with the much-needed financial help to pursue my (expensive) interests in academia as I study literature and philosophy at Oxford. I feel very blessed to have the assistance of the Ewha Alumnae Association as I look forward to a hopefully unforgettable experience in England.

Taehwan Kim Harvard University

사랑하는 북미주 이화 의대 동문 여러분께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회
회장 장명주 (의대, 77)

화창한 봄을 맞이하며 올해 20주년을 맞는 이화여대 북미주 동창회와 함께 저희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회 연례모임을 한국에서 색다르고 큰 의미있는 미팅으로 하기위해 다양한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애석하게도 올 가을 미팅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한 해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 생각만해도 너무 안타까웠지만 동문님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어렵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9년 9월에 Portland Oregon 동창회 총회 모임에 문병인 의료원장님, 정성애 사회봉헌부장님과 권정희 팀장님이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참석하여 북미주 동창들과 뜻있는 시간을 같이 나누었으며, 이대서울병원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대서울병원 마지막 완공 단계 및 개원까지 헌신적으로 기여해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의료원장님들의 수고로 이대서울병원의 완공식을 성공리에 마쳤고, 올 2월1일부터 새로운 임원들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제 18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유경하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이 임명되었으며, 제 2대 이대서울병원장으로는 임수미 영상의학과 교수, 제 14대 이대목동병원장으로는 유재두 정형외과 교수, 사회공헌부장으로는 김영주 산부인과 교수가 임명되었으며, 권정희 팀장님께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아직 유경하 의료원장님과 임원들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이메일을 통해 계속해서 소식을 교환해 왔습니다. 특히 김영주 사회공헌부장님은 그동안 의대선교사업에 많은 공헌을 해 오셨고, 앞으로 저희 북미주 의대 동창회와 함께 선교사업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의과대학 북미주 동창회는 이화여대 북미주동창회와 함께 이대서울병원 기금 모금을 계속해 왔으며, 많은 동문들의 협조로 2019년에는 \$218,150을 송금했으며, 이후 2020년 6월말 현재 총 \$330,000의 기금이 모였습니다. 특히 올해 졸업 50주년을 맞이하는 1970년도 동문들이 김준자('70) 기대표님을 중심으로 총 \$241,000을 모금해 주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회의 발전과 우리의 모교인 의료원 발전을 위해 기금 후원에 동참해 주신 동문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올 5월 23일에 벌써 개원 첫돌을 맞은 이대서울병원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지속적인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부터 앞으로 2년간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실 박정옥('71) 이사장님과 채은화('71) 회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시기가 곧 지나가고,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내년에 이화여대 북미주동창회에서 꼭 뵙기를 고대합니다.

이대서울병원 / 의과대학 후원금

* 고 강일희 ('66) 10,000

김명미 ('67) 2,000	박근희 ('70) 10,000	이덕희 ('70) 50,000	이영희 ('70) 10,000
김옥자 ('70) 10,000	박정옥 ('71) 2,000	이세환 ('70) 10,000	이은실 ('70) 20,000
김정혜 ('70) 50,000	서옥자 ('70) 20,000	이숙희 ('70) 10,000	장명주 ('77) 10,000
김준자 ('70) 10,000	안희문 ('70) 10,000	이순희 ('71) 10,000	조후자 ('70) 10,000
김진경 ('81) 9,000	오재영 ('80) 10,000	이안숙 ('71) 1,000	황정미 ('72) 30,000
박은숙 ('70) 10,000	윤영희 ('70) 10,000	이영미 ('70) 1,000	Bouh Kim 5,000
			합 계 330,000

* 위의 금액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모금된 금액입니다.



2019년 연례총회 보고



제 19회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연례총회가 풍성한 자연의미를 자랑하는 Portland, Oregon에서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열렸다. 미국 14주에서 110명의 이화 가족이 모여 4박 5일 동안 다 함께 13번의 식사를 나누고 예배, 강의, 총회와 만찬 그리고 800여 마일의 버스여행을 하며 기억에 오래 남을 즐겁고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가졌다.

첫날 (9/21): DoubleTree Hilton Portland Hotel에 도착, 반가운 재회를 나누며 처음 참석한 동문들과의 인사 속에 이곳저곳에서 웃음이 퍼졌다. 포트랜드에 살고 있는 동문들의 협조로 특별히 준비된 김밥과 떡은 아침 일찍 비행기로 북미주 각 처에서 온 동문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이사회는 최경숙(영문, 66) 이사장의 개회 선언과 기도 후 이정화(수학, 81) 서기의 2018년도 회의록 낭독과 각 부서 사업보고가 있었다. 장명주(의대, 77) 북미주 의대 회장은 의대 동창회 이사장 겸 본 동창회 회장인 박정옥(의대, 71) 동문과 함께 지난 5월 23일 이대서울병원 개원식 참석과 의료원 후원금 모금 및 전달 상황을 보고했다. 또한 본교 의과대학 학생을 위해 마련한 윤영희(의대, 70) 동문 장학금 \$10,000과 본 동창회 장학금을 두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부 보고와 안정옥(의대, 73) 예배선교 부장의 사업 계획 보고가 있었다. 김희영(피아노, 75) 재무의 2018년도 동창회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 홍명희(의대, 69)동문의 감사보고, 김정희(가정, 60) 재정운영위원장의 재정보고와 2020년 예산 심의가 있었다. 공천 위원회 보고로 2020년도 차기 이사장 공천과 인준 및 차기 회장과 부회장 공천과 인준이 있었고, 차기 회장 이풍자(영문, 62)동문의 2020년도 연례총회 및 사업계획 발표가 있었다.

이날 저녁 호텔 식당에서 Italian Buffet 식사 후 이어진 만남의 시간에는 임원 소개와 처음 참석하신 동문들의 소개가 있었다. 10명씩 소그룹으로 나누어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의 역할을 소개하고 친목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의대 동창회 모임은 서울에서 오신 문병인 의료원 장님을 비롯해 정성애 사회공헌부장과 권정희 팀장 그리고 북미주 의대 동문 21명이 참석하여 늦고 피곤한 하루였지만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 (9/22): 안정옥(의대, 73) 예배/선교 부장의 인도로 주일 예배를 드렸다. 말씀으로는 2016년부터 이집트와 러시아 등 세계 여러 지역을 다니며 선교 활동에 참여해 온 성교회(물리, 70) 동문이 “선교하는 삶의 보람”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선교지에서 있었던 다양한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더욱 강해진 사명 의식과 보람 그리고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나누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교육부장 김영미(교육심리, 72) 동문의 진행으로 이청 교수님의 강좌가 열렸다. 첫시간에는 ‘21세기 기술을 가져온 산업 혁명의 역사’ 인공지능의 원리와 응용분야 및 관련 산업인 로봇 공학의 현황과 장래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둘째 시간에는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가져 온 장단점,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가 현재와 장래에 가져 온 변화를 사회와 교육 그리고 종교적 차원에서 분석해 보는 강의를 통해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특강을 마치고 김평화(사회학, 68) 동문을 비롯한 Portland 이화 동문들이 준비한 그곳 지역 특산물인 담긴 맛있는 한식 점심식사를 대접 받은 후 관광에 나섰다. 관광 안내자로부터 Oregon의 역사적인 배경인 1800년대 개척자들의 ‘Oregon Trail, Lewis and Clark Exposition’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International Rose Test Garden’, ‘Pittock Mansion’ 등 여러 명소와 시내 관광지를 둘러보며 Portland 시내 관광을 마쳤다.

이날 저녁에는 김명미(의대, 67) 동문의 사회로 2019년도 연례총회가 열렸다. 강영숙(약학, 60) 동문의 개회 기도와 이명숙(도서관, 66) 동문의 선창으로 교가 제창 후 박정옥회장의 환영사, 김광자 전회장께 감사패 증정, 김희영 재무의 재정보고가 있었다. 장명주 의대 회장의 이대서울병원 모금 현황 보고가 있었고 한국 본교에서 참석하신 문병인 의료원장님께서 이대서울병원의 완성 과정을 영상을 통해 보여주셨고, 의료원 장래 계획을 설명해 주셨다. 이어 재임하는 최경숙 이사장과 차기 회장 이풍자 동문의 인사와 함께 2020년에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특별한 총회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총회를 마쳤다.

Gala Dinner 후 이어진 2부 순서는 심재희(체육, 90) 동문의 유능하고 재치있는 사회로 진행되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춤 추고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의료원에서 준비해 오신 예쁜 가방과 핸드폰 충전기 선물은 우리의 즐거움을 더 해 주었다.

셋째날 (9/23): 아침 식사 후 버스 2대에 나누어 타고 3일간의 오래된 여행을 나섰다. 조효은(교육, 71) 동문과 박정옥 회장이 각각 버스 안에서 여행지 안내를 했다. 첫 관광지로는 해안 가까이 우뚝 선 Haystack Rock으로 유명한 Cannon Beach에 들러 모래사장을 밟으며 삼삼오오 사진도 찍었다. 이어서 아이스크림과 치즈로 유명한 Tillamook Creamery에 들러 건강한 소에서 짜낸 우유가 치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견학하고, 다양한 치즈와 아이스크림을 시식한 후 ‘Yaquina Head Lighthouse’ visitor’s center를 둘러 Oregon Coastline을 만끽할 수 있었다.





늦은 오후에는 끝없이 펼쳐진 서해안의 모래사장과 바다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전면 해변 전망이 있는 Newport Agate Beach 호텔에 도착했다. 식사 후 어둡게 내린 태평양을 바라보며 뽀뽀 타오르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 앉아 marshmallow를 구우며, 심재희 동문의 진행으로 다 함께 노래도 부르면서 삼삼오오 모여 춤도 추며 시간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고, 유난히 반짝이는 별 아래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넷째날 (9/24): 새벽예배에는 18명이 모여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 아침 식사 후 긴 일정을 고려해 김명미(의대, 67) 동문과 부군 여천기 박사께서 두 버스에 나누어 아름다운 대화법에 대한 강의를 틈틈이 해주셨다. Crater Lake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Roseburg에 들러 박영숙(영문, 71) 동문이 경영하는 Jasmine에서 점심을 먹었다. Crater Lake에 가는 길은 급변하는 날씨로 길이 막힐 수도 있다하여 마음을 졸였는데 다행히도 날씨가 청명했고, 천상의 호수 Crater Lake에 무사히 도착했다. 미국에서 가장 깊고 물이 맑은 호수라는 명성에 걸맞게 방대하고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이었다. 아쉬운 마음을 남기고 Crater Lake을 출발해 이날 밤 숙소인 Bend에 도착했다.

영화 Bohemian Rhapsody와 The Green book 두 편과 김희영 동문과

부군 최진욱 교수님이 선곡해 오신 음악은 긴 버스 여행에 또 다른 즐거움을 주었다.

다섯째날 (9/25): 마지막 날 아침, 북쪽으로 달리며 만년설로 유명한 Mt. Hood와 Mt. Bachelor, Mt. Three Sisters를 즐기며 3시간을 달려 Hood River 둔덕에 있는 Riverside Restaurant에 도착했다. Oregon과 Washington 주를 연결하는 다리(Bridge of Gods), 조용히 흐르는 강의 평화로움을 보며 강가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풍성하고 맛있는 buffet lunch도 즐겼다. 이어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Multnomah Falls의 모습은 절경이었고, 폭포가 떨어지며 뿜어대는 물안개는 우리 모두의 얼굴을 축축히 적셔 주었다.

4박5일간의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시원한 태평양을 끼고 굽이 도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푸르른 숲과 넓은 들판 그리고 에메랄드 빛의 Crater Lake 등 어느 하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절경이었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모닥불에 둘러앉아 노래하며 보낸 밤의 기억은 우리 여생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되리라.

이날 저녁 Portland 공항에서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내년에 반가운 재회를 기약하며 헤어졌다.

박정옥 (의대, 71)





2019 여행 사진 제공: 김택수 (이희련 의대, 61) 부군







북미주동창회 20년의 역사에서 본 이화인의 모습

강수상 (김정희: 가정, 60)

20년이라면 거의 한 세대가 오고 간 세월이지만 그 몇 배를 살아온 연배들에게는 옛말로 살같이 흘러가 버린 시간이다. 학교가 있다면 졸업생이 생기고 졸업생이 모이면 동창회를 만든다. 이러한 풍습 가운데 남다른 명안이 있어, 특별한 활동을 해온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절차를 밟아 생겨난 모임이 어느덧 20년의 역사가 흘러가며 고유한 모습으로 자라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의 모습으로 동창회를 키워낸 이러한 저력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동안 가까이서 보아온 사람으로서 느낀 바를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살펴볼 만한 부인할 수 없는 호기심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이 동창회에 전환의 붓물이 터진 계기는 11년 전에 만남을 무릅쓰고 성사시킨 통합 동창회가 다시 갈라진 사건이라고 알고 있다. 이들에게 온 이러한 시련에 구애받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돈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내 절호의 기회로 뜻을 모아간 이들의 판단은 티 없이 맑고 밝은 아름다움이다.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이화인의 품위와 신의를 지키며 흔들림 없이 묵묵히 사랑의 가슴으로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먼저 수용하였고, 크고 긴 안목으로 과제를 풀어가는 인내의 덕목을 믿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결의를 하면서도 이들은 쉬지 않고 즐겁게 일을 해 나갔다. 한 해에 한번 모이는 총회가 모든 활동의 핵심이다. 이를 위한 준비는 이 일을 맡은 분들의 치밀한 계획, 토의, 실천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는 일이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짜낸 프로그램은 불과 며칠을 보내는 만남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했다.

해가 되풀이되며 달라진 것은 대단했다. 이 변화는 참석하는 분들의 밝은 모습에서 읽을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삶의 경험이 서로 부담없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교환되는 기회가 마련되는 행사에 기탄없이 참여하게 되면서 생기를 가지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며 역사가 쌓여 어느 모임보다 재미있고 격조 있는 그리고 많은 것을 부담없이 배우고 나의 시야를 넓혀주는 경험은, 생소한 곳을 찾아 즐기는 자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만나게 했다. 친교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일보다 더한 즐거움이 퍼져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가슴이 살아 있는 한, 이 모임은 사리에 맞는 일을 의논하며 그 일들을 실천할 것이고 그런 일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리지 않고 참여할 뿐 아니라, 봉사에도 기쁘게 참여를 아끼지 않는 폭넓은 삶을 즐기는 모습이 뚜렷해져 가는 이 흐름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역경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참 돋보이는 친교의 광장이라는 생각을 한다.

끝으로, 이 모임과 인연이 생기면서 이질감보다는 이제까지 살아오며 경험하지 못한 농칠 수 없는 삶을 찾게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 놀란 일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치밀하고 정리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화인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일을 맡으면 성실히 해낸다.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로가 따뜻하게 서로의 마음을 풀게 한다. 가까이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이들의 마음가짐이 또 한 나를 감동시킨다.



만남의 장소

해마다 익숙한 얼굴의 선후배들을 대하면서 매번 마치 새로운 만남인 양 기쁨이 가득한 얼굴에 뜨거운 포옹으로 시작되는 이화여대 북미주동창회 — 거기에 새로운 얼굴의 동문들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Portland, Oregon에서 열린 북미주동창회 19회 연례모임에는 처음으로 참석한 동문 부부들이 30명이 넘어 어느 해보다 많았다. 이는 자연의 풍성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Oregon이라는 장소의 매력일지도 모른다. 더불어 보고 싶은 옛 친구를 만나 회포를 풀며 관광 명소를 즐길 수 있는 만남의 장 — 일반 여행사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이화인만을 위해 준비된 일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작년 연례모임에서 처음 뵈는 서옥자 선배님 부부와의 만남은 정다운 선배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나의 머리에 예쁘게 남아있다. 1970년에 의대를 졸업한 서 선배님은 Los Angeles에서 의사로서 헌신적 생활과 여러 방면에서 열정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보기 드문 이화인이다. 첫인상이 너무 젊어 보여 조금 당황했지만 2박 3일 동안 버스 여행을 하며 톡톡이 나눈 대화를 통해 조금씩 어색함이 사라지고 선배님께 서슴없이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여행 첫날 저녁 어둠이 내린 태평양을 바라보며 우리는 훗날 타오르는 모닥불에 둘러앉아 와인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정겨운 노래에 흥겹게 춤도 추며, 웃음을 바다로 흘려보내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긴 시간을 늘 함께 지내온 선후배인 양 어색함 없는 그날 밤이 나에게서는 무척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으로 가슴 깊이 남아있다.

이날 여행길에서 생일을 맞은 서옥자 선배님을 위해 원일성 부군님은 남몰래 축하의 와인을 준비해 이태리식 저녁

식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주었다. 눈길만 닿아도 사랑이 넘치는 낭군님 닥터 원의 덕분이었겠지요?

70년도 동기 동창이신 김정혜 선배님의 초대로 우리 동창회 모임에 처음 참석하신 서옥자 선배님이 어색해하지 않고 편한 만남이 되도록 서로 배려하며, 다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엿보며 동기간에 우정을 나누는 마음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한인옥, 안순은 두 동기 동창 역시 1970년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그동안 서로 연락하며 지내오다 북미주동창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각기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에서 참석해 Portland에서 처음 상봉했다. 두 동기들에게 4박 5일의 여정은 세월을 뛰어넘는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또한 이 두 분은 여행 마지막 날 저녁에 먼 길에 지친 우리들에게 와인을 대접하며 선후배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듯 해가 가면서 북미주동창회는 친구가 좋아 또 친구를 만나러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여러 곳에 살고 있는 이화인들에게 아름다운 만남의 장소로 우뚝 서게 되었다.

더 나아가 동기 뿐만 아니라 늘 선후배에 대한 사랑과 배려, 이것이 바로 우리 북미주동창회의 아름다운 면이라고 생각한다.

여행을 되돌아 보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다. ‘만남의 장소란?’ 서로 사진을 찍으며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간직하고 싶은 욕구들이 샘솟는 다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주며,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모임 — 이화여대 북미주동창회!!!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섬세한 마음, 생각만으로도 흐뭇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공간으로 이끌어 주는 우리들의 동창회 — 이만한 ‘만남의 자리’가 또 있을까...

Pandemic이 가져 온 이화 동창들의 삶

모두에게 감당하기 힘든 불안과 초조함을 초래한 COVID-19 Pandemic의 현실 속에서 이화여대 북미주동창회는 80세를 훌쩍 넘은 대 선배님들께 전화로 문안 인사와 더불어 근황을 살펴보았다. 선배님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알아보고자 이풍자 회장과 최경숙 이사장이 직접 나섰다.

놀랍게도 선배님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의 마음과 또한 신실한 믿음의 힘으로 느긋하게 잘 버텨내고 계셨다. 각기 다양한 일과 취미 생활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음에 오히려 젊은 우리는 숙연해지며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 올 그 날을 생각해 보며 도전을 받았다.

• **강영숙 (MI: 약학, 60)** 3월 초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운 시기에 노인 아파트의 친구들과 408개의 마스크를 열심히 만들어 안과 의사인 딸의 직장 동료들 12명과 환자들을 위해 기증했다는 흐뭇한 소식.

• **김동월 (TX: 영문, 59)** 두 아들의 초대로 7시간의 장거리 운전을 마치고 1주일 동안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무사히 귀가. “늘 하는데까지 열심히 일하며 삶을 즐기자”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김 선배는 지난 5년간 교사로 봉사해 온 Literacy Council에서 주최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영어교실이 속히 다시 시작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 **이인옥 (NY: 의학, 59)** 산부인과 의사로 바쁘게 지내다 오래 전 은퇴를 한 후에는 취미생활에 몰입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 어려운 때를 맞아 실제로 사군자, 수채화 등으로 많은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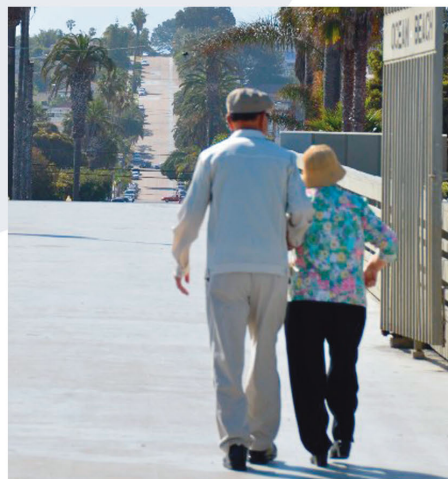
• **이정은 (FL: 가정, 60)** 과거 20년간을 남편과 함께 중국, 몽골 등지로 사회 봉사를 하며 바쁘게 살아 온 선배는 척추 협착증으로 고생이 심해 한동안 동창회 총회도 참석을 못해 섭섭한 마음이란다. 이제 몸을 유연하게 하는 운동과 함께 골프로 건강이 좋아지면 다시 그리운 동창들을 만날 그 날을 기대해 보고 있다.

• **김숙자 (NJ: 영문, 55)** “어머님은 얼마전 Hip surgery를 받으시고, 재활원에서 회복 중이십니다.”라고 전하는 아드님께 북미주동창회 임원진은 김 선배님의 빠른 쾌차를 바란다고 사랑의 문안 인사를 전했다.

• **주영숙 (WA: 영문, 60)** 50년 이상 살았던 정든 미네소타를 떠나 2년 전 시애틀로 이사온 후 자녀들이 시장을 봐주는 덕분에 감사한 마음이다. 부군과 함께 밖에 나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접하며 산책도 하고, 하루 한번 잊지 않고 동기들과의 단체 카톡방을 즐기고 있다.

• **이주연 (TX: 의학, 59)** 과거에는 부군과 북미주동창회 총회에 매년 참석했으나, 동기들이 나이가 들면서 참석하지 못해 섭섭한 마음이다. 다행히 90세를 넘은 부군과 함께 매일 산책하고 있고, 며칠 전 Garden shop에서 사온 화사한 꽃들을 정원에 심을 계획으로 들떠 있는 마음이다.

• **신복순 (VA: 동양화, 60)** 과거 매주 5일간 에어로빅 운동을 심하게 한 결과 “너무 허리가 아파 고생을 했는데 이젠 회복되어 살 것 같다.”며 5월에 계획된 「The Art League of Alexandria」 주최 온라인 그림 전시회에 출품할 작품 준비로 화실에서 바빠 보내고 있다.



• **이동우 (FL: 영문, 57)** 87세가 믿기지 않게 낭낭한 음성
의 선배는 5세 연상의 부군을 돌보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바쁘게 하루를 보낸다. “부러움 없이, 누구에게나 접
접함 없이, 하나님 뜻대로 남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 간
다는 선배는 요즘 1993년부터 모은 「정신대 대책 위원회」에
관한 많은 자료를 어떻게 할까? 고민에 차 있다.

• **한순정 (CA: 서양화, 59)** 한국에서 본인의 수필과 그림을
수룩한 “바람개비 정원” 책을 발간했다. 과거 2년간 판화,
Digital Art로 바쁘게 보내다 다시 유화를 시작했다는 선배
는 5월에 있을 「녹미전」 출품으로 한창 바쁘다.

• **현주 (CA: 약학, 55)** 늘 음식을 해서 나누는 훈훈한 정서
가 깃든 곳, 은퇴한 한국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지금 살
고 계신 동네가 좋다는 선배는 마을의 연장자 부부로 지난
어머니 날에는 이웃 집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가져
와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을 받았다고.

• **유진순 (IL: 심리, 57)** 요즘 방안에 붉은 Amaryllis 꽃이
활짝 피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보며 즐기고 있다. 그러나
부군께서 정성들여 키워 온 꽃들이기에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반려자 생각에 마음이 아파진다.

• **조용옥 (CA: 의학, 59)** 3년 전 추운 바람의 도시 시카고
를 떠나 기후 좋은 캘리포니아로 옮겼다는 선배 내외는
따님의 자상한 보호 아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도 편안
한 마음이다. 가끔은 엄마의 특별한 요리로 딸을 도우려는
자상한 어머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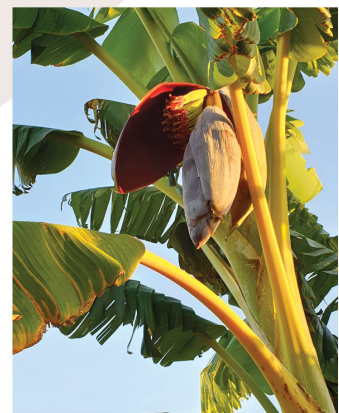
• **한영숙 (CA: 영문, 60)** 늘 술선수범하는 친절한 친구 기
사로 알려진 선배는 지난 3월부터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지루함 속에 다들 불평이란다. 꿈쩍도 하지 말라는 아들의
부탁에도 며칠 전 친한 동기 동창의 생일 선물을 보내느라
우체국에 다녀오기도. 얼마전 결혼 기념일을 맞아 남편이
떡 좋아했던 뒷 마당의 장미를 꺾어 납골당에 들릴 수 없어
한없이 아픈 마음이었다.

• **윤중식 (IL: 의학, 59)** 선배 부부는 쟁쟁하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서로가 함께 해로한 시간에 한없이 감사한 마음
이다. 팔이 아파 요즘은 운전도 힘들다며 주로 음식을 주문
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딱한 사정이다.

• **이학혜 (CA: 의학, 60)** 부군과 사별 후 고향과도 같았던
테네시 주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이주, 딸네 식구들과 함께
살다가 얼마 전 딸이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며 홀로 서는 삶
을 시작했다. 주로 딸이 챙겨주는 식재료로 가끔 이태리식
파스타 요리도 즐기고 있다. 요즘은 집에서 Medical Journal
과 San Francisco Chronicle를 정독하며 가끔 산책으로
소일하고 있다.

• **김정수 (IL: 사회사업, 60)** 25년 넘게 일해 온 시카고 시
립 도서관도 잠시 문을 닫은 상태라 집에서의 많은 시간을
YouTube의 요리 강의를 듣고 실제로 만들어보기도. 맛있
게 만든 얼큰한 오징어 볶음을 함께 나눌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다.

• **이혜리 (CA: 사생, 60)** 마당에 심은 각종 채소가 쪽쪽
자라는 즐거움에 물 주고 잡초 뽑느라 하루를 바쁘게 사는
선배는 바이러스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이 당황스러운
난관을 잊고 사는 듯 하다. 한쪽 마당에 즐비한 선인장의
가지 각색 아름다운 꽃들이 또한 선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보랏빛 선인장을 포함해 그 종류도 다양하여 꽃들의
화려한 자태에 피곤함도 가신다고 한다. 대추 나무에 열매
가 무성히 열리고, 진보랏빛 바나나 꽃이 화려하게 피고
나면 탐스러운 바나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그 재미에
선배는 평소에도 외출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즐겨
한다. 모든 열매 맺는 나무는 각각 알맞은 때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관건인데 나무들의 키가 너무 커져서 다루기
가 점점 힘들단다. 그러나 수확한 달디 단 바나나는 시중의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맛있고, 보기도 먹음직
스러운 대추와 아보카도를 식탁에 놓을 때면 작은 체구의
여농부인 선배의 마음은 한없이 풍요로워진다.



COVID-19 Pandemic으로 변화된 나의 삶

구광자 (가정, 67)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리던 생활들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됐다. 본의 아니게 다들 갇혀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친지나 친구들과 외식을 하며 즐기던 모임들이 중단되었고, 요즘 신종어로 [집콕] 생활이 되었다. 음식을 집에 쌓아 놓고 집 안에서만 살고 있다. 올 해가 '취의 해'라는데 우리 인간들이 정말 취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됐다.

외출할 때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타인과의 6ft의 상호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시장을 보러 갈 때도 멀리 파킹을 하고 마스크를 쓴 채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피해 줄을 서고 상호 거리를 준수한다. 잔디를 깎는 정원사에게도 꼭 마스크를 쓰고 일하라고 당부한다. 반가운 이웃을 만나도 손을 흔들고 미소를 보이나, 역시 마스크와 6ft의 상호 거리 지키기는 필수이다.

가까이 사는 자식 내외와 손주들이 우리를 위해 손수 만든 음식이나 피자를 갖고 방문할 때도 집 안으로 들어 오지 않고 문 밖에 놓고만 간다. 만나도 안아주며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없고 멀리서 손만 흔들며 미소만 교환하곤 한다. 그대신 뜨거운 포옹을 보낸다는 풋말 사진을 카톡으로 보낼 뿐이다.

요즘은 나의 거동이 예전같이 잼짜지 못한 탓에 나의 착한 남편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운전도 해주고 요리와 설거지 등 많은 일들을 기꺼이 맡아 한다. 나는 평소 정원 가꾸는 일을 즐겨 싱싱한 채소와 화초를 보며 행복했는데 이제 그 일도 힘들어졌다. 대신 남편이 농부와 같은 수고로 수확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남편은 나의 약사가 되어 매일 복용할 약들을 약 통에 일일이 담아놓고 챙긴다. 고맙기 짝이 없지만 행동이 느려서 답답하기도 하다.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빨리 배우지를 못하고 꼭 나중에 수십 번 똑같은 질문을 하곤 한다. 그럴 때면 화가 나서 내가 가르쳐 줄 때 무엇을 들었느냐고 소리를 고래 고래 지르는 나쁜 여자가 되고야 만다. 그러나 나의 반려자가 되어 도와주는 남편이고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에게, 나는 오래 오래 건강히 살아만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곧 후회하며 미안해 한다. 미소를 띠는 남편 역시 나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한다.

집에서의 갇힌 생활 속에서 나는 텔레비전을 통해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시사, 요리, 여행 프로그램 등을 마냥 즐기며 삶의 지혜와 감동적인 실화, 좋은 글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귀한 글들을 내가 좋아하는 분들에게 열심히 카톡으로 나누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다.

삶의 지혜

이정순 (화학, 57)



때때로 이 세상에, 그리고 우주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감사하다. 세상을 살다보면 참을 수 없는 순간들을 마치 테니스 공을 받아 넘기듯이 잘 받아 넘기는 순간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고통과 기쁨이 공존하는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매일의 삶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 나는 나쁜 면보다는 좋은 면을 보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한다. 이것이 인생의 팔순 중턱에 다다르며 나 스스로 터득한 지혜이며, 이러한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유학을 왔거나 이민을 와서 이토록 큰 미 대륙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생소한 문화와 생활 습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크게 혹은 작게 느끼며 살아간다. 나는 과거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의 가족으로

유럽에서 8년을 살았고,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곳에서 살아 왔던 경험으로,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고 모범적인 한국인으로의 위상을 펼치려고 노력해 왔다. 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미국에 정착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노력 끝에 현지인들 가운데서도 당당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정직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미국인들의 좋은 점은 배우고 실천하는 동시에, 우리 고유의 한국인의 아름다운 정신은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Korean-American에게 특별히 주어진 축복이라 믿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겐 전해야 할 정신적 유산이다.

나는 가끔 [북미주동창회]란 만남의 울타리를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해진다. 한때 이화여대의 4년 문하생으로 맺어진 인연으로 고국을 떠나 이곳에서 살며 동창회를 통해 해마다 선후배가 만나 친목하는 가운데 세미나를 통해 새것을 배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축복 -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다. 진·선·미 이화인의 그윽한 향기는 동창회를 통해 널리 퍼져 나가리라...

가을 단풍

손숙자 (불문, 61)



알싸한 시월 늦 바람이
나무 뻗뻗한 숲속을 한바퀴 돌며
색색으로 옷을 갈아 입힌다.

노랑 빨강 갈색의 조화로
색을 맞추느라 연초록도
아직은 그냥 두고서
더 추워지기 전
단풍 잔치를 매일 배품다

바람따라 앞쪽은 왼쪽으로
뒷쪽은 오른쪽으로
넘실대는 장단에 맞춰
잔잔히 또 구비구비
온 몸을 살랑인다

마치 조용한 음정이 퍼지는
끝내기 아쉬운 향연이다.

사랑했나봐

유진순 (심리, 57)



나도 몰래 사랑했나봐 많이 사랑했나봐
오늘도 내 마음속 깊이 함께하는 그대
나도 몰래 많이 사랑했나봐
벽찬 꿈을 안고 허덕이던 그 시절
빛을 보여준 그대 나의 큰 버팀목이었지

사랑이 무엇이길래
최로애락 함께한 인연의 열매인가
그땐 내 영혼의 반려(伴侶)
보내야하는 마음 괴로움 그 자체
우리 헤어지면 너도나도 온전하지 못할가봐요

멍청해진 나의 기억 내가아닌 나
의욕 없는 나자신이 이해 안되네
기억도 의욕도 떠나버리는가
다시 나를 홀로 두지 말아요 힘겨워요
다음 생에서 만나면 영원히 함께해요 다시 만나요

세월이 어떤 모습으로 닥아올지 멍멍하던 그 순간
동문들이 보내주는 인정어린 격려
있었던 안도감 안겨주네
진선미로 성숙한
동문들의 귀한 인품
온 세상 아름답게
물들이는 빛이 되기를!

부군 설문지

북미주동창회는 2020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감회가 크며, 해마다 총회에 참석해 ‘든든한 우리가 있잖아요~~’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부군님들께 감사드리며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부군님들의 설문지 답을 만나면서 밝은 웃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의 이야기

- 1 이대생이랑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
라고 느낀 순간은?
Do you think you made the right decision marrying an Ewhaian (woman who graduated from Ewha)?
When did you feel that way? And why?
- 2 프로포즈 당시 순간 기억 또는 그 당시의 느낌은?
Do you remember the moment you proposed and/or how did you feel at the time?
- 3 젊은 시절의 아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Use one word to describe your wife when she was young.
- 4 아내를 꽃으로 비유한다면?
If you could compare your wife to a flower, which flower would she be? Why?
- 5 앞으로 아내와 같이 새롭게 하고 싶은 일?
What would you like to do with your wife in the future?

이곳에서는 결혼 전 부인 성함으로 통일 하였습니다.

북미주동창회 동창회보 편집부

심 완 섭 (아내: 김영미 - 교육심리, 72)

- 1 세월이 지날수록 진가가 나타남.
- 2 호의적이고 상냥하다는 느낌.
- 3 하고 싶은 것이 무한대로 많음.
- 4 처음에는 라일락, 지금은 국화
- 5 아내는 항상 새로운 project가 있으므로 협조하려 함.

김 장 수 (아내: 이안숙 - 의대, 71)

- 1 역시 이대졸업생은 class 가 다름
- 2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 3 잔소리 많은 wife
- 4 가을 코스모스 같은 여자
- 5 RV 타고 국내 National Park 여행하기

이 민 우 (아내: 이경희 - 생활미술, 70)

- 1 Portland 이대 동창회에 참석했을 때.
- 2 이쁘고 지성적이고
- 3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음.
- 4 이쁜 새로 피어난 장미꽃
- 5 얼마 안 남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새롭게 하고 싶은 것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동안 잘 살아 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삶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아내에게도 더욱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석 철 수 (아내: 김수자 - 의대, 68)

- 1 이대 총 동창회에서 모두 참으로 재미있게 놀 때.
- 2 너무 도도해서 기분이 좀 상했었어요.
- 3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나를 감동시켰어요.
- 4 나한테는 살색 장미꽃.
- 5 그저 지금껏 살던 대로 그대로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조 건 호 (아내: 이지연 - 의대, 67)

- 1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 2 성모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천사
- 3 예쁘고 이지적, 항상 명랑하고 헌신적
- 4 아름다운 Orchid
- 5 아침마다 굿모닝으로 방긋미소, 손 잡고 함께 걷기

육성원 (아내: 최영 - 기독교학, 03)

- ❶ 매해,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점점 더 느낍니다.
- ❷ 프로포즈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경상도 남자는 밥먹고 그런 거 안 합니다.
- ❸ 어린 땅아지: 힘도 있고 추진력도 있는데 아직 여물지 않은 어린 눈망울이 떠오르는군요.
- ❹ 들꽃: 화려하진 않지만 멀리서 바라볼수록 미소가 지어지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서.
- ❺ 결혼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새롭고 즐겁고 사랑스러움.
굳이 새롭게 시작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함.
인간은 변하면 죽는대요.

김영택 (아내: 심재희 - 체육, 90)

- ❶ 너무나 멋진 선배님들과의 인연을 갖게 해준 오랜 전통을 한순간 느끼게 해준, 지금은 매년 참가하는 북미주동창회의 첫 만남의 순간
(미주 캐나다 크루즈 여행)
좋은 선배들을 만날 때 그 학교의 전통과 자부심을 가장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같네요 ~
- ❷ 그냥 같이 있고 싶었던 하얀 느낌
- ❸ 지금도 참 괜찮은 내겐 너무 이쁜 여인
- ❹ “난” 정말 정성스럽게 키워야 하며 꽃 피우기가 어려운 그런 꽃
- ❺ 현명한 남편이 되고 싶음

여천기 (아내: 김명미 - 의대, 67)

- ❶ 처음 병원에서 만난 때부터 예의 바르고 열심히고 어른 잘 알아 보는 것이 의대생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해마다 열리는 동창 모임에서 이대생 분들의 정말 아름다운 슬기로운 참 모습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 ❷ 다른 곳에 갈 이유도 더 생각할 까닭도 없다고
- ❸ 열심히고 책임감에 충만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이쪽 말을 들었는지 아닌지 참 알기 힘들고
- ❹ 너무 여러 가지 많아서.
복사꽃, 개나리, 눈 속의 아젤리아 진달래꽃
- ❺ 좀 더 천천히 열심히 걷고 같이 공부하고

James Chang (아내: 민창순 - 간호, 84)

- ❶ 결정하기 힘든 순간 현명한 판단을 할 때
- ❷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하나 걱정도 됐다
- ❸ 짙은 딱딱해도 마음이 따뜻함
- ❹ 새빨간 장미
- ❺ 지금 함께 하는 일을 건강이 허락 할 때까지 쭉 하고 싶다

강창만 (아내: 김영희 - 약학, 68)

- ❶ 결혼 잘못했다고 느껴 본 기억 없음
- ❷ Yes or no 대답없이 살짝 수줍어하는 모습이 저를 흥분시켰음
- 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저를 잘 도왔다고 생각해 왔음
- ❹ 들꽃
- ❺ 지금처럼 그리고 영화가 나보다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Robert Helfritz (아내: 장명주 - 의대, 77)

- ❶ First time I went to Korea and visited Ewha University and met some of her schoolmates. Very impressed school and the level of class and elegance of everyone that I met, both student and teachers.
- ❷ Scared!!! What if she says thanks but no thanks, how do I react? When she said yes I felt relieved but more so grateful she would want me.
- ❸ Still young!!! She really is not much different than the first time I met her. Still very full of life and ambition, both in her private life and professional capacity. Was great mom, doctor, and friend and still is after all this time.
- ❹ Rose. Elegant and classic but if you mess with her the thorns come out.
- ❺ I look forward to a long and happy future with my lovely wife. We will travel a bit more while we are physically able to, but we will do everything together. I anticipate many more years of continuing adventures with my best friend.

부군 설문지

Roger Shorack (아내: 조효은 - 교육, 71)

- ① At the time I met Hyoeun I didn't have much understanding of what Ewha represents in terms of women's education and advancement. What my eyes saw was an intelligent, independent, charming and beautiful young woman. Later I came to realize how important Ewha was and is for her character development. As we went through life together I could not help but notice the character of the friends by whom she was surrounded, many of them from Ewha. I have always felt blessed by fortune to have her in my life.
- ② I cannot remember the exact time but I remember that I fell in love with her quickly. It was a magic time and it has never really ended.
- ③ I need two - capable and independent.
- ④ I would compare her to a rose. A rose is beautiful but if you treat it carelessly it will 'bite' you!
- ⑤ We have always loved to travel.
I hope we can continue with that.

Victor Eiichi Okim (아내: 김흥자)

(섬유미술, 58입학)

(4학년 1학기까지 완료/ 2007 명예졸업)

- ① I definitely felt that I made the best decision, not only the right choice, on marrying an intelligent, sophisticated, and elegant lady from Ewha.
We got married while attending the University of Hawaii in Honolulu, Hawaii, where we both were pursuing further educational opportunity and future professional career. Hawaii was, is, and will be forever romantic, beautiful, and cosmopolitan.
- ② Yes, I certainly do remember when I decided and proposed marrying her. I did not feel quite sure of the far distant future but I felt happy and comfortable because many of my friends and family members liked her immensely.
- ③ IMPRESSIVE.
- ④ Red Rose or White Lilly, because I feel that she is very passionate and also very pure.

- ⑤ I would continue my support for her being healthy and energetic, while encouraging her to devote her time and effort to creative endeavors and make unique contributions to the field of Metal Arts.

김기상 (아내: 조정숙 - 영문, 65)

이화여대는 기독교 학교로써 성실하고 똑똑하고 책임있는 인재를 길러낸 우수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화를 나온 아내와 반세기를 함께 살면서 아내의 동기생들도 또 남편들도 여럿을 만났는데, 받은 인상은 대부분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책임있게 살아온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화동창 모임에도 몇번 참여해 보았는데, 이화의 식구들은 모두가 자기의 의견이 뚜렷이 있으면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할줄도 아는 양식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대학 친구로부터 나와 집사람이 연애할 때 함께 찍은 사진을 받았는데, 이 사진을 보니 내가 왜 아내와 사귀어 결혼했는가를 재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반세기가 넘게 아내와 살면서 느낀 것도 이와 다르지 않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살 수 있어 고맙게 여겨집니다.

아내는 은퇴 후에 그림도 많이 그리고 사진도 공부했는데, 나도 아내와 함께 여행도 하면서 사진도 찍으면서 지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요셉 (아내: 박정옥 - 의대, 71)

내 이름은 선인장

북미주 이대 동창회 부군들께 설문이 있었다. 그중 “아내를 꽃으로 비유한다면?” 하는 질문에 남편은 한참 생각한다.

나는 옆에서 속으로 장미? 는 아니겠고 수선화? 질레꽃? 아니면 할미꽃 이라고 할 줄 알고 기다린다.

나오는 말이 선인장! 실망 보다는 의문이 생긴다. 선인장에 꽃이 있어? 어디서 본 기억은 나는데? 무척 신기하고 우아한 꽃이었던 저 사람이 진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댈어낸 말인지? 생각해 본다.

아무리 보아도 꽃으로 보이지 않는 나! 그저 앙상하게 서있지 않고 서 있는 나! 가뭄에도 눈 비에도 태양을 보면 미소를 머금고 고개 드는나!

언젠가는 나도 꽃을 피울 수 있겠지 하고 기대해 본다.

선인장꽃



노마드의 소(沼)



2019년 풀꽃시인상 작품
김인자 (약대, 63) 시인

[시인의 해설]

6월 어느날 요세미티공원에 있는 바위산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보러갔었다. 폭포줄기에서 옆길로 벗어난 물방울들이 감물이 아닌 작은 소沼에 갇혀서 빙빙 돌고 있었다.
그 속에서 꿈을 삭이며 억눌린 자아와 지글대는 의지와 싸움을 거쳐서 드디어 2세들에 의해 삶의 희망을 갖게 되는 아픈 노마드들의 삶의 여정을 그렸다.

70년 동안 문학 사랑에 중독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미학에 허기진 마음은 불치의 문학 사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토마스 아캄피스의 명언 '내 이 세상 도처에서 쉼 곳을 찾아보았으되 마침내 찾아낸 책이 있는 구석방보다 나은 곳은 없더라'는 말로 남은 생을 같은 길을 걸으려 한다.

시

요세미티국립공원 푸른 숲에서
구름 속 바위산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본다
포말을 하얗게 날리며 낮선 곳으로 떨어지는 물벼락
쏟아지며 뒤섞여 함께 흐르는 대로에서
과속으로 벗어난 물방울들
새로운 설렘으로 구비치는 물굽이 따라
깊은 소에 빨려들어 빙빙 걸돌고 있다

미래의 희망은 사각지대에 갇히고
허방에 저당 잡힌 노마드의 꿈
시간은 세월로 길게 누어있고
이방인의 핏빛 외로움
타인 종과 뒤섞인 매운 비빔밥이 되어
스파크가 실시간으로 터지는
밤과 낮의 파수꾼으로
가짜 같은 매일이 지나 간다

운명을 개척한다고
현존에서의 일탈은 한 걸음 진화라고
이명으로 도해내도
체념이 울적 소용돌이치는 가슴의 소沼
버짐 핀 관절에 시린 슬픔이 차고
몽크의 절규가 잠자의 안간힘이
맷돌같이 무겁게 육화된 노마드 일 세대
과거는 잊었다
젊음도 가버렸다
강물은 내일로만 흐른다
회한과 그리움으로 범벅된 녹슨 나이트에
이방의 구멍 난 허무가 공명으로 울린다

화석처럼 다져진 세월의 주름에
지금껏 땀줄을 놓지 않고 있는 웅지로
태양 빛 반짝이며 날아가는 디아스포라 씨앗들
희망이라는 명궁을 쏘 올린 2세대
비로소 소를 탈출하는
쳐진 어깨의 물방울들

봄, 2020



정인자 (영문, 64)

아침 공원을 가로질러 걷는다. 불타는 듯한 진홍의 부겐비이아 옆에는 보랏빛 라벤더가 아름다운 봄꽃의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공원은 거의 텅 비어있다. 두어 사람만이 눈에 띈다. 그나마도 서로 마주치지 않게 다른 길을 찾아 걷고 있다. 인적이 드물어진 길 풀섶에는 작은 도마뱀들이 들락날락거리며 숨바꼭질을 한다. 어제 뉴스에서는 파리의 센스강을 오르내리는 유람선이 사라지자, 오리들이 강 위를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공원은 옆으로 작은 초등학교를 끼고 있다. 나는 학교 건물을 건너다 본다. 교사는 물론 운동장도 조용하다. 재깍거리던 하이 피치의 아이들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침묵만이 흐른다. 정문은 굳게 닫혀있다. 아이들은 학교로 오지 못한다. 모두 집에 머무른다.

유치원에 다니던 나의 손자도 집에 갇혀 산다. 거실에서 블럭 놀이를 하거나, 제 아빠가 뒷뜰에 세워준 작은 텐트에서 동생과 삼살개를 데리고 캠핑놀이를 하는 것이 유일한 야외활동이다. 그나마 샌디에고에 사니, 운이 아주 좋은 셈이다. 뉴욕 맨해튼에 살고 있는 큰아들네 두 손주는 고층 빌딩의 6층 콘도미니엄 속에 갇혀 지낸다. 밖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 철이 바뀌며 공원의 숲이 신록의 연두색으로 빛나고 꽃들이 다투어 피는 센트럴 파크를 지척에 두고도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부활절 ‘달걀 찾기’는 작년에 썼던 플라스틱 달걀을 꺼내어, 책장이나 소파 뒤에 감춰두고 집 안에서 해야 했다. 이 무슨 변고 속에 살고 있단 말인가!

“어느날 하룻밤 자고나니, 세상은 온 천지가 바뀌었네. 디즈니의 매직은 사라지고, 이제 파리는 로맨틱하지 않고, 세계 도시 뉴욕의 명성은 어디로 갔는가! 만리장성 강한 성벽도 무용지물, 성지 메카 순례길은 텅 비었네. 그대 나를 사랑한다면 오지를 마오. 포옹과 키스는 죽음의 무기라오....” 어느 작가의 글이다. 전 세계를 누비던 관광객들의 무리는 사라졌다. 밀라노 대성당 앞은 적막하기 짝이 없다. 거대한 신전 복소를 향해 오르내리던 나일강의 유람선에서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가 수입원인 관광산업이 몰락할 것을 염려한 이집트 정부가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위’라 불리는 미국 메릴랜드주 주지사 래리 호건이 한국에서 코로나 진단 키트 50만개를 공수해 온 것이 탑 뉴스가 되었다. 유미 호건 여사가 한밤중에 한국에 전화를 걸어 성사시켰다고 한다. 미국 의료계의 부족한 물품 해결의 성공의 예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 여세를 몰아 호건은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인가.

어제는 코로나 섯다운으로 석달째 만나지 못한 두 친구와 작심하고 함께 모였다. 반가운 얼굴들이 만나 아침 9시에 산책을 나섰다. 마스크, 선글라스, 모자로 무장하고, 세 여인이 각각 6 피트씩 떨어져서 일렬종대로 거리를 걷는다. 인근 공원으로 가서 한바퀴 돌고, 두 친구의 모습을 전화기 카메라에 담았다. 마스크를 한 채 떨어져 서 있는 두 사람의 뒤로는 하늘이 파랗게 개어있고 멀리 흰 조각구름이 평화롭게 떠돌고 있었다. 이 팬데믹은 언제쯤에 끝날 것인가.

한국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이지연 (의대, 67)

푸르렀던 여름 녹음이 어느새 고운 단풍잎으로 변하고 낙엽들이 우수수 내려 쌓인다. 싸늘한 바람이 불어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면 불타는 빨간 잎들, 화려한 노란 잎들 사이로 보이는 높푸른 하늘을 우러러보며 사가락 소리를 내며 낙엽들이 밟힌다.

마음속으로 구르몽의 시 ‘낙엽’을 또 읊어보게 된다. 햇 곡식이 영글고 맛있는 과일들과 열매들이 결실을 맺는 때 - 옛사람들은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불렀건만 가을이 되면 이 해도 벌써 후반기를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아쉬움으로 서글픈 느낌과 낭만에 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심정이다.

이맘때 프린스턴 한국학교는 해마다 ‘한국 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마련하고 전문 성악가들을 초빙하여 아름다운 노래 향연의 시간을 마련한다. 이 날에는 고유의 한국 음식으로 저녁을 먹고 1부 순서에서는 언제나 듣고 싶은 애달프고 그리운 우리 가곡을 들었다. 성악가들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테너, 바리톤으로 나뉘어 각자 특유의 음색으로 목소리를 뽐내며 우리 가곡을 불러 청중들의 심금을 울렸다. 님이 오시는지, 갈대밭, 그네, 황혼의 노래, 비목,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청산에 살리라, 보리밭, 옛날은 가고 없어도, 신 아리랑... 등 노래에 취하면 가슴 내부에서 용솟음치는 고향의 향수가 발동되었는지 나도 모르게 두 눈에서는 감상의 눈물이 흐르곤 했다. 순간적으로 노래에 몰입되어 그동안 쌓였던 이국에서의 외로움과 고국을 향한 향수가 묘한 감정으로 뒤범벅이 되어 눈물이 나버린 것이다.

어쩌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사랑하는 고국을 떠나 이곳 미국에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본다. 고국에서 지냈던 시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세월을 이곳에서 살면서 이제는 이곳이 제2의 고향이 되었음에도, 나는 여전히 김치찌개와 된장국을 더 좋아하고 우리의 흘러간 노래에 감동하는 순토박이 한국인이다.

제2부 순서의 오페라 아리아는 내용을 대충 설명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가곡을 들을 때와는 감정이 다르다.

그러면서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가야 들을 수 있는 유명한 오페라 노래들을 가까운 프린스턴에서 들을 수 있는 행운에 감사했다.

음악은 세계인이 함께 듣고 감상하는 세계인의 언어라고 한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화,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음악. 우리는 음악을 듣고 감동하게 되지만, 아름다운 목소리로 직접 노래를 부르는 분들은 신의 축복을 받은 것 같다. 어떻게 저런 고운 음성을 낼 수 있을까... 감탄하며 오로지 부러움의 대상이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휴스턴의 유명한 한 암 전문의 말에 의하면 찬송가를 한 곡 부르면 몸 안에서 NK (natural killer) 라는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천 개씩 생겨나고, 성가대에서 합창을 하면 천 오백개씩 생긴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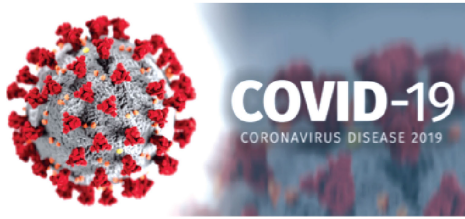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란 생각이 든다. 어떤 모임에 가든지 저녁 식사 후에는 의례히 모여서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 생활을 정서적으로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리라.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상처 받은 영혼도 치유되는 것을 느낀다. 특히 종교 음악은 정신적으로 성스러워지고 신앙심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 같다. 유치원 시절 동요 부르고 학창 시절 친구와 뒷동산에 올라가 부르던 노래들은 얼마나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들로 남아 있는가...

지난 여름 성령대회를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같이 간 친구들과 함께 내내 노래를 하면서 돌아왔다. 그 때 우리는 가곡과 성가, 동요 할 것 없이 누가 먼저 노래를 시작하면 함께 따라 불렀다. 노래에 빠져 오랜만에 느껴보는 순수한 행복감으로 먼 길이 조금도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각자 차를 세워 둔 종점에 이르자 우리는 모두 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다.

나무들이 곱게 단풍들고 여기저기 낙엽 쌓인 늦가을, 찬바람이 불어 스치는 청량한 저녁에 그리운 가곡을 들으며 감상에 젖어보는 ‘한국 가곡의 밤’이 해마다 기다려진다.

COVID-19의 PANDEMIC이 초래한 생명위협과 경제파탄의 과제



김정희 (가정, 60)



Coronavirus는 자체의 생명은 없지만 사람의 호흡기 세포 속으로 들어가 그 속의 핵산과 접목되어 살면서 증식하고, 그 크기는 세균보다 천분의 1정도로 전자 현미경을 사용해야 겨우 볼 수 있는 RNA로 만들어진 미립자이다.

이 virus가 지난해 말경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처음 발생하여 그것이 알려진 후 여행과 무역의 세계화로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이미 140여 국가에서 급속도로 전파되어 6월 1일 현재 630만명의 감염자가 생겼고 37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180여만명의 감염자와 11만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다. 급격히 진전되는 감염을 막기 위해 많은 사회 활동들이 중단되었고 국민들은 집(Lockdown)에 있어야만 한다. 이로 인한 미국의 실직자는 지금 현재 3천여만명에 20%를 넘어 심각하게 위축된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정부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3조 달러의 지원금을 비롯하여 낮은 이자의 융자를 다방면으로 개인과 기업, 지방 정부에 풀었다. 이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추가로 하원에서 결의한 후 상원에서 검토 중이다. 2019년 미국의 GDP가 21조 달러였다면 3조라는 금액은 GDP의 14% 규모이며 그 2배는 28%이다. Federal Reserve(연방준비은행)의 의장인 J. Powell은 최근 담화를 통해 더 많은 경제 보조와 Vaccine의 조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늦어질 경우 경제의 회복이 2021년 하반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기우를 발표하였다.

한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정부 당국자들은 COVID-19의 대응에 있어서 시간과 속도를 중요시했다. 작년 12월 31일 중국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유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당국자들은 우한에서 오는 감염자를 가려내기 시작했고, 중국발 비행기의 입국을 금지하였다. 한국에서는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전국 단위의 콜센터를 신속하게 조직하고 대량의 마스크를 공급하면서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승인을 간소화하였다. 반면, 미국에서는 중국 여행 제한이 늦어졌고, 동시에 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개인 보호 기구를 비롯해 중요한 의료 장비의 구입과 배포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늦어지면서 필수 장비와 시설의 부족과 함께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였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인명의 손실을 보고 있다..

Trump 대통령과 의료팀의 Dr. Fauci가 기자회견을 할 때,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 대통령은 “Vaccine or No Vaccine, U.S. is Back” 라는 단호한 발언을 한 데 이어, Dr. Fauci는 활동의 문을 열 수 있는 때는 “Only Virus can tell” 이라고 말하며 virus의 전파가 수그러지고 vaccine이 상용화되는 것을 본 후라고 말하며, 대통령과는 상반된 발언을 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 함께 분발하여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감염을 예방하는 vaccine과 치료약을 개발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virus의 유전 정보를 활용하는 Chemical Vaccine을 최신 기법의 Genetic Engineering으로 몇 개월 만에 생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부는 미국과 영국의 제약회사들에게 1억 달러가 넘는 연구비와 생산비를 보조하였다(전통적 방법의 vaccine 개발은 대개 몇 년이 걸린다). 인체 실험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올해 안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유효 실험이 나오기도 전에 자료부터 모아 놓고 인류 생명의 위협과 경제 파탄의 기로에서 엄청난 모험을 감수하며 비상 상태로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감염의 확산을 금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생명을 구하려고 하면 이것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여 경제 부양을 위해 국민들의 움직임을 허용하면 다시 감염이 기세를 올리니 참으로 딱하다. 1918-1919 년 1차 대전 때 Spanish Flu가 범람할 때는 19억의 인구 중 5억이 감염되고 5천만명이 사망했는데 그때는 치료약도 예방 주사도 피하는 방법도 몰랐으니 완전히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최근 20여년 동안 Virus: SARS(2002-3), MERS(2012-20), Ebola (2014-15) 등의 심각한 전염병들이 있었지만 그 여파는 지금의 COVID-19와는 달랐다. COVID-19는 감염력이 빠르고 그 독성이 강하여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쓸어 전무후무하게 인류의 안정을 흔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파탄은 1929~33년의 경제 대공황보다 더 클 가능성도 있다.

정신적, 심리적 불안을 비롯하여 침체된 경제의 여파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인류의 생활 모습은 급속도로 변할 것이며 지금의 대재난이 지나간다고 해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과거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모두 이겨내고 보다 나은 미래를 구현해서 현재에 이르렀다. 이번에도 역시 큰 과제를 앞에 두고 지도자들과 과학자들이 상호 협조와 현명한 판단으로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은 물론, 치료약과 vaccine 개발을 철저히 과학에 입각하여 총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급속히 발전하는 새로운 기술과 함께 더욱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새 시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바란다.

2020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전공의 해외 파견 후기

김수정 의대 63회 졸업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2016년 산부인과 후반기 전공의로 수련을 시작한 나는 작년 여름에 하나의 고민이 생겼었다. 동기들이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는 겨울 중 2달의 시간 동안 시험을 보지 않는 나는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병원 교육수련부의 메일을 받게 되었다. 전공의 수련 기간 중에 해외 파견 2개월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그 메일을 받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갈 수 있는 지역과 병원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생각만큼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 안되면 해외 병원 중 이대 의대나 이대 병원과 연결된 선교 병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님을 통해 이정옥 선배님과 연결이 되었다. 그리고 감사하게 산부인과,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학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이정옥 선배님의 소아과 병원인 New light medical group과 참관을 허락해주신 Dr. Jane Hong의 병원인 Womens care OB/GYN group과 함께 Anaheim Regional Medical Center으로 파견을 갈 수 있게 되었다.

막상 떠날 준비를 하는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으로 가려니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지만, 새로운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기대했다. 한국에서 1월 1일 저녁 비행기를 탔는데 LAX 공항에 도착하니 1월 1일 오후여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새해를 보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정옥 선배님과 사부님께서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와주셔서 집으로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인사를 나누면서 2달 간의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2달 동안 산부인과와 소아과로 나뉘어서 파견 실습을 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른 의료 시스템으로 개인 클리닉에서 외래 진료를 보고 근처 병원에서 수술실 및 입원실, 분만실, 신생아실을 사용하는 구조였다. 그래서 한 건물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진료 참관을 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다 더 다양한 인종과 언어를 가진 환자를 만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문화적인 차이와 질환의 차이도 배울 수 있었다.

감사하게 한국에서 후배가 왔다는 소리에 여러분의 선배님들께서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좋은 곳도 구경시켜 주셨다. 처음 만났지만 같은 이대를 나왔다는 그 하나의 공통점으로 인해 원래 알던 사이처럼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다. 선배님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났던 용기를 배웠고, 완전히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성실함을 배웠다. 어느새 4년 차로 현재의 상황에 익숙해져 있던 나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났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나보다 더 한국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국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아쉽고 짧은 2달의 파견 기간 동안 느꼈던 점은 이대 선배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계신다는 점에서 후배로서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은 캘리포니아의 겨울을 처음 겪어서 한국에서 출발할 때 그에 맞는 옷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영어와 스페인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었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캘리포니아에서 이제는 가족과 같은 이대 선배님들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2달의 시간을 보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시 뵈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동창 활동 소식

Las Vegas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지회는 두 달에 한번씩 동문 생일 축하파티 겸 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동창 소식과 모교 소식을 나누고 있다.

지난해 연말 모임에서는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되었다. 회장으로 이명숙 (도서관학, 66) 동문, 회계로 이경숙 (교육, 64) 동문이 선출되어 앞으로 일년간 라스베가스 지역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수고와 봉사를 하게 되었다.

이날 모임 후 연말 파티 겸 부부 동반으로 30여명이 모여서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면서 회식 후 노래방에서 장기자랑을 했다. 평소에 즐겨 부르며 본인이 제일 잘 부르는 곡을 선택해 다함께 열창하는 모습에서 라스베가스 동문들간의 뜨거운 정을 엿볼 수 있었다. 앞으로 '다같이 배우고 건강하게 지내면서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자'라는 의도로 모인 이 만남은, 끝으로 동창 한명 한명의 가슴에 꼭 와닿는 노사연의 '바람'을 모두 제창하고 아쉽게 헤어졌다.

2020년 가을 한국에서 개최되는 북미주동창회 연례모임에서 다시 반갑게 만날 것을 기대했지만, Covid-19 상황으로 단체 모임을 할 수 없는 딱한 상황이라 여러 동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모두가 애석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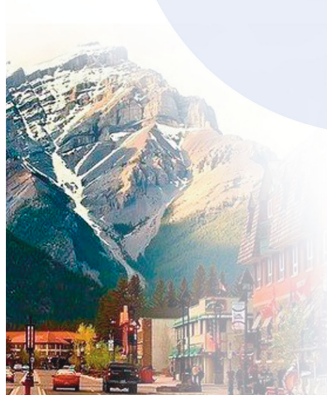
Calgary 캘거리

이화여대 캘거리 지역 동창회 (이하 이화랑)는 매년 네 차례의 정기모임 외에 크고 작은 만남으로 해마다 그 소속감과 자부심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창립 4주년이 되는 이화랑은 2020년에는 좀 더 의미있는 행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송년모임에서 캘거리 동창회는 Edmonton Women's Shelter 기금 모금으로 Korean Musicians.com이 기획하는 김현정 동문의 'Valentine's Day Benefit Concert'를 후원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 뜻깊은 공연의 연주자 김현정 동문은 한국 뿐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며 피아니스트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이화의 동문입니다.

지난 2월 19일(토), 캘거리 한인 장로 교회에서 열린 'Valentine's Day Benefit Concert'는 많은 관람객이 모여 성황리에 마치면서 후원한 이화인의 저력이 지역 신문에 크게 실리는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올해 북미주동창회 연례모임이 COVID-19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된 탓에 아쉬움이 크지만 모두들 건강을 잘 지키셔서 열정과 기쁨이 넘치는 2021년 모임에서 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람개비 정원] 책 출판

한순정 동문



(서양화, 59)

“살아보니 그리 나쁘지 않아, 그림과 함께라면”

그림 그리듯 글을 쓰고, 글 쓰듯 그림을 그려온 한순정 동문의 그림 에세이 [바람개비 정원]

이 책은 ‘인간 한순정’의 삶이 담긴 자서전이자 ‘예술가 한순정’의 작품이 살아 숨쉬는 작품 집이다. 다채로운 유화, 판화, 종이역기(페이퍼 위빙), 종이접기 등 대표작 73품과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겪어낸 세대 특유의 치열함이 4개의 장으로 나뉜 글에 잘 묘사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6·25 전쟁을 겪고 결혼 후 미국 이민을 떠난 한 선배의 개인사는 마치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처럼 흥미 진진하고 모국에 대한 따스한 애정이 전해 지기도 한다. 미술 관련 이야기에서는 그림 감상법과 판화 작업 노하우 등 소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바람개비 정원’에 얹힌 추억과 현재 진행형 꿈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현역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통해 ‘그림(꿈)과 함께라면 노년의 삶도 나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아울러 열정 가득한 저자의 글과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준다. 현재 이 책은 전자책으로도 출간되었다.

한순정 동문은 1959년에 이대 서양화과를 졸업, 국전에 2년 연속 입선 했으며 과거 총 18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2019년 9월에는 LA 녹미회가 모교의 초청을 받아 본교에서 녹미전을 했다.



[무지개 사라진 자리] 책 출판

이영강 동문



(국문, 66)

이 동창의 세 번째 소설집인 『무지개 사라진 자리』가 2019년 7월, 한국의 해드림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다. 이번 소설집에는 모두 7편의 단편소설과 ‘내 영혼 어디에’라는 중편소설이 포함돼 있다. 서평에서 이승훈 작가는, “작품, 한편 한편이 드라마를 연상케 하며, 완전히 허구가 배제된 듯한 현실감이 충만해 강한 데자뷔를 발산시킨다. 또한 특별히 반전이 돋보이는 소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작품에서는 결말을 독자의 상상에 맡김으로써, 그 궁금증을 소설의 강한 여운으로 승화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10월에는 장소현 판설리 작가와 함께 LA에 소재 J. J. Grand 호텔에서 ‘책 이야기가 한마당’ Book Concert 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가족, 친지, 문인 등, 80여 명의 축하객들이 참석했으며, Book Concert는 입체낭독과 독자와 작가의 대화로 진행이 되어 소통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 동창의 저서로는 동인지 『참 좋다』, 소설집 『가시꽃 향기』, 장편소설 『침묵의 메아리』 외에 한국학교 교재 다수가 있으며, 미주한국일보 문예공모 소설 신인상, 에피포도문학상 소설 금상, 해외문학상 소설 대상, 고원문학상(장편소설) 등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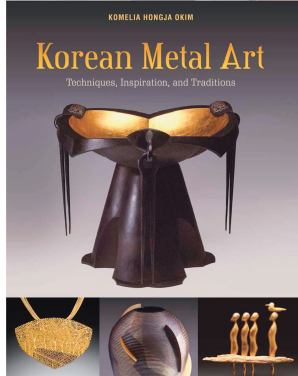
현재 미주한국문인협회, 미주한국소설가협회 회원이며, 미주가톨릭문화 편집장을 맡고 있고, 계간미주문학 편집장, 본교 남가주동창회보 편집장(2008년~2014년)을 역임했다.



동창 활동 소식



금속 예술가 **김홍자** 동문 (섬예, 58입/07졸)



Korean Metal Art: Technique, Inspiration, and Tradition [한국 금속 미술: 기법, 영감, 전통]

금속예술가 김홍자 교수는 “한국의 예술혼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했다. 금속이라는 문화가 지닌 우리 역사의 기록, 하지만 저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느라 누구 하나 엄두를 못 내던 이 ‘대의(大義)’를 자신의 소명이었다고 말하는 김홍자 작가(섬예, 58입/07졸) 동문은 80세에 이 숙제를 마쳐 2019년 7월에 드디어 이 책을 출판했다. (출판사: Schiffer Publishing, Ltd)

이 책은 총 16개의 소분류에 걸쳐 한국 전통 금속공예 기법을 소개하고, 3세기부터 현대까지 각 기법을 적용한 작품을 담았다. 칠보부터 금부, 포목상감 등 대표 기법의 기술적 노하우를 총 망라했으니 전공자에게는 교과서요, 비전공 한국인에게는 우리 문화유산을 확인하는 자부심을 주는 책이며, 외국인에게는 한국 문화 예술의 깊이를 각인시키는 증명서와도 같다. 이 책을 영어로 써야겠다고 생각만 해오다 은퇴를 한 후에야 비로서 이를 수 있었다며 김홍자 동문은 감회에 젖어 눈시울을 붉혔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의 자료를 모으고, 1백 13명의 작가로부터 작품 사진을 받아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꼬박 4년의 시간이 걸렸다.

한국 금속공예의 과거와 현재를 총망라한 영문 서적인 이 책은 2019년 INDIES BOOK AWARD의 최종적으로 뽑힌 10책 중의 하나이다. 김 동문은 지난해 8월 31일 한국 서울에서, 9월 22일 워싱턴 D.C 그리고 10월 17일 하와이로 오가며 출판 기념식 및 북 사인 행사로 바쁘게 보냈다. 책 구입은 amazon.com에서 가능하다.



Los Angeles 로스앤젤레스



작년 Portland, Oregon에서 있었던 제 19회 북미주동창회 연례모임을 마치고 10월 30일 재회 모임이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바다의 풍경으로 유명한 San Clemente에 있는 이현숙(사회학, 68) 동문의 비치 하우스에서 이청 교수님 부부, 김명미(의대, 67) 동문 부부, 홍순조(사회학, 68) 동문, 양태희(미술, 68) 동문, 이순희(의대, 71) 동문 부부, 박정옥(의대, 71) 전희장 부부, 안정옥(의대, 73) 등 13명이 모여서 지난해에 있었던 만남의 소중한 시간들을 되새기며, 이현숙 부부가 정성껏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내년(2020년)에 북미주동창회 모임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 하며 아쉬운 이별을 했다.



Chicago

시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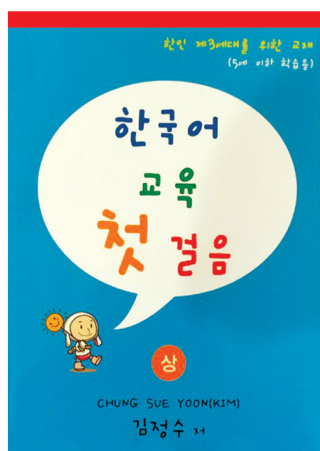
작년 6월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각별한 이화 사랑을 보여 주시는 대선배님(61년도 이전 졸업)들을 모시고 즐거운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오유심(의대, 76) 신임 이사장과 오구미 회장(의대, 68)을 중심으로 임원단이 함께 2019 년 하반기 여러가지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8월에는 가을 정기임원이사회가 있었고, 9월에는 Portland, Oregon에서 개최된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에 참석, 10월에는 Starved Rock으로 이사회 가을 나들이가 있었고, 12월에는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파티 등 만남과 동행을 통하여 이화인들의 정을 더욱 돈독히 나누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간 2019년 이었습니다.

2020년 새해는 오유심 이사장님께서 고문 및 임원들을 모시고 신년 모임 초대 행사가 있었고, 3월초에는 봄 정기임원이사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카고의 언론인 조광동님의 아름다운 시낭송의 시간과 함께 희망 찬 출발을 하였으나, 세계를 위협한 Covid-19 Pandemic으로 인해 예기치 못했던 여러가지 사회적 제약으로 이번 5월 정기총회와 ‘이화의 밤’ 등 여러 행사계획들이 취소된 상황입니다.



김정수 (사회사업, 60)



‘한국어 교육 첫 걸음’이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신과 맥을 이어가는 작지만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시카고 한국학교에서의 40여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3세대 4~5세 아동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교재로 일상 용어를 그림과 함께 익히는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담고 있다. “유아들이 그림과 연관지어 스스로 즐겁게 깨우치는 과정에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김정수 저자의 소박한 바람이다.

김정수(사회사업, 60) 동문은 1966년에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인천에 있는 미감리교 선교재단의 인천 기독교 사회관 관장으로 지내다 1974년에 도미하여 1977년 시카고 한국학교 제3대 교장, 1992년에는 범 시카고 동남부 학교 교장으로 일 해 오다 2017년에는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주최, 한국학교 교사 40년 근속 표창을 받았다.

현재 시카고 도서관(링컨 벨몬트)에서 일하는 김 동문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도서관과 한국학교 일 그리고 교회 찬양대원으로 계속 봉사하고 싶어한다.





*Midwest Pain &
Rehabilitation*

Tel: 605-275-3070

Fax: 605-275-3071

Dr. Myung J. Cho MD. DABMA

Medical Director

*Chronic Pain Management Medical Acupuncture
Physical Therapy*

Located in the Independent Medical Arts Building

6709 South Minnesota Ave. Suite 201 Sioux Falls, S. D. 57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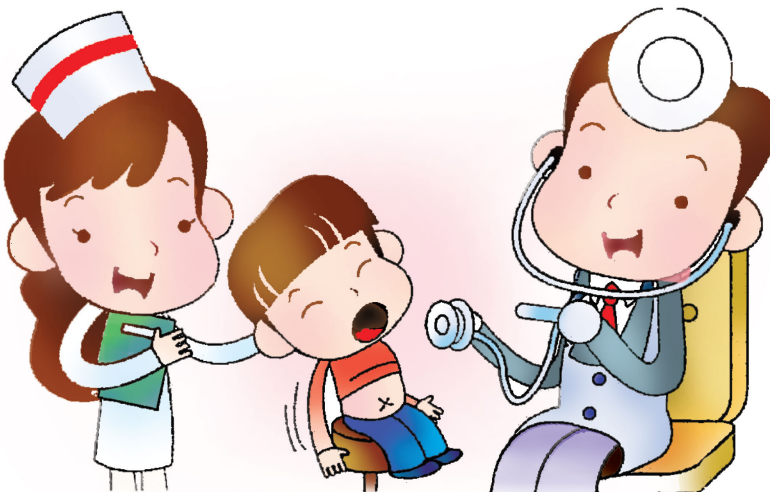
장명주 (의대, '77)



New Light Medical Group

P E D I A T R I C S

안정옥 (의대, '73)



1716 W. Medical Center Drive
Anaheim, CA 92801

T: (714) 635-0600

F: (714) 635-0610

760 S. Washburn Ave. Suite 21
Corona, CA 92882

T: (951) 734-8000

F: (951) 734-8096

Our Exchange Number:

(714) 447-7397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는 올 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과거 20년 동안 많은 동창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참여는 동창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선후배들의 끊임없는 성원을 통해 북미주동창회는 그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동창회 사업과 장학금 수여 및 이대서울병원의 발전을 위한 모금을 계속하며 각 분야에서의 활동과 봉사의 폭을 해마다 넓혀가고 있습니다. 동창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물심양면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금은 비영리 단체 [501(C)(3)]인 북미주동창회를 통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후원금

한국이름		이사회비	\$ 100
영문이름		장학기금	\$
전공 및 졸업년도		동창회 사업 및 운영 후원금	\$
Home Phone		의료원 발전 후원금	\$
Mobile Phone		합 계	\$
E-mail			
Mailing Address			

1. 이사회비는 매년 \$100.00 입니다.
2. 장학기금, 동창회 후원금 및 의료원 후원금은 뜻하시는데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3. Please make a check payable to EWUAANA

Mailing Address:
 하양신 회계 (의류직물, 87)
 Yangsin Jeon
 724 Lacrosse Ave., Wilmette, IL 60091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we look for a way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han it was before. We are compelled to step into the unknown, but together we can overcome these challenges.

This is a critical moment to reflect on who we are, what we are made of, and what we can do for now on. Humility is about showing compassion and empathy for everyone. Kindness is about sharing more than material things—we can give our time, knowledge and words of encouragement to those who need it most.

Ewhaians thank all frontline workers for their dedication to keeping our country going during this time.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4170 Alamo St. Simi Valley, CA 93063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CANOGA PARK CA
PERMIT # 488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EWHHA WOMANS UNIVERSITY MEDICAL CENTER

보구녀관의 정신으로 100년 의료를 책임지겠습니다.

보구녀관의 정신 : '최초에서 최고로'

이화의료원은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이었습니다.
이화의료원은 최초의 여성의학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이화의료원은 최초의 여의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이화의료원은 최초의 간호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이화의료원은 최고의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동창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이화 동창 및 동창 가족을 위한 진료비, 건강검진 할인 혜택
- 해외 동창을 위한 특별 검진 프로그램 운영
- 제휴 호텔 이용 시 객실료 할인
- 의료원 방문 시 전담 직원 안내 및 의전 서비스
- 숙박 검진 및 의료원 투어 프로그램 제공
- 이상 소견 시 당일 진료 의뢰 및 빠른 결과 회신

상담 및 예약

이대서울병원 | 1522-7000
이대목동병원 | 1666-5000

웰니스건강증진센터 | 02-6986-2222~4
이대여성암병원 | 02-2650-5990~3

웰에이징센터 | 02-6986-2290
이화의료원 사회공헌부 | 02-6986-5802~3